

'흥이 있는 다이내믹'

강진청자축제 본격 개막

다양한 체험거리 확충 · 30% 청자 할인판매 등



축제의 흥과 다양한 체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제47회 강진청자축제'가 성대한 개막식을 갖고 막을 올렸다.

개막식 개최일인 5일 기준 방문객 5만2천여 명이 강진청자축제를 방문했으며 이는 지난해 개막식 당일 방문객인 3만 명에서 2만 2천 명 증가한 수치이다.

원래 3일 개최예정이었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개최시기를 변경해 추진되는 강진청자축제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에서 오는 9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이 날 개막식에 앞서 식전행사로 한옥청자판매장 앞 화목가마에서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희망의 불꽃, 화목가마 불지피기' 행사가 진행됐다. 이승욱 강진군수를 포

함해 축제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이 화목가마에 불을 지피는 모습은 관광객들의 흥미를 자극하며 눈길을 끌었다.

본격 세레머니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됐으며 이승욱 강진군수를 비롯해 황주홍 국회의원과 위성식 군의회 의장, 강윤성 재경강진군 향우회장 등이 참석해 무대 위에서 함께 대형 청자 항로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올해 제47회 강진청자축제'는 흥이 있는 다이내믹 축제로 추진방향을 정하고 방문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축제장 곳곳에 배치해 참여도를 높였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물레

성형, '국보급 청자를 찾아라!' 청자 발굴, AR & VR로 보는 고려시대 전통 가마소성, 청자축제 오 늘 신문 주인공은 '나야~ 나', 나만의 도자기 채색, 청자문양 페인팅, 청자 풍경 만들기, 청자 약세서리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청자촌에서 진행된 물레성형 체험은 도우미 20여 명이 협조해 전통물레를 이용해 체험객들에게 물레성형과 청자 제작 과정을 설명해 주어 특히 어린이와 함께 축제장을 찾은 가족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방문객들이 여러 형태의 청자 성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명품 강진청자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이벤트도 추진되었다. 강진청자축제 기간 동안 강진관요와 민간요에서 생산된 다양한 작품을 평소의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옥청자판매장 내에서는 이벤트 존도 운영하고 있다. 이벤트 존에서는 소품 및 생활자기 위주의 즉석구매가 오후 3시를 전후해 매일 1회 진행되며 다기세트 등 정형화된 상품 판매가의 70%를 세일하는 쪽단세일이 매일 2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무안군, 양파산업육성 대책 적극 추진한다

양파산업 발전 T/F팀 운영 5개 분야 15개 시책 내놔



전국 최대 양파 주산지인 무안군이 양파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무안 양파산업 발전 방안 마련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4일에는 승달문화예술회에서 행정기관과 농협, 농촌진흥청과 농촌경제연구원, 그리고 농업기술원

등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전체 회의를 열고 5개 분야에 15개 시책을 발굴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T/F팀 운영을 통해 무안군은 양파 산업육성을 크게 생산관리와 유통 기공 및 6차산업화방안 그리고 양파 명품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생산관리 분야에서는 양파생산 조정제와 종자개발 및 국산 종자 보급, 양파기계화 지속 확대, 국립 파속채소 연구소 무안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하기로 했고, 유통 및 가공 분야에서는 양파 수

매등급제 개선, 채소 국가 수매제 및 공공 수매제 시행, 수출확대, 양파 직거래화 확대 및 소비촉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파 명품화, 그리고 무안 양파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해 양파즙 등 제조기술 표준화와 대량소비 확대, 양파 대체 고구마산업 육성을 위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무안양파의 6차 산업화를 위해 앞으로 조성될 첨단농업 복합단지내에 농업과 경관, 그리고 양파가 융복합된 테마파크 조성과 양파 명품화에 농업인과 생산자 모두가 함께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진도군, 수석·그림·진도개 함께 볼 수 있는 홍보관 개장

보배섬 진도군에서 수석과 그림, 진도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무료로 볼 수 있는 홍보관이 문을 열었다.

진도군 군내면 금골마을 일원에 최근 문을 연 돛모닝 진도진도개 수석 홍보관'은 주민 김기용(57세)씨가 30년 동안 수집한 수석과 그림 등 200점이 전시되어 있다.

홍보관에는 희귀한 수석 140점과 그림 40점, 서각 20점 등을 비롯 진도개 심사원으로 12년 동안 활동을 경력을 바탕으로 진도개 20여마리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특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진도개 체험과 사진 촬영이 가능한 공간을 따로 조성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김기용씨는 수석을 수집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진기한 수석을 평생 수집해 이번 수석의 저변 확대를 위해 홍보관을 열었다.

또 취미로 서각을 10여년전부터 시작, 직접 조각한 수준급 높은 서각 작품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개막

5일 개막 1000여 명 운집...사흘 만에 26만 명 찾아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개막식이 5일 공설운동장에 마련된 주무대에서 열렸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 예정일보다 4일 늦춰 치러진 개막식이었지만 군민 1,000여 명이 참석해 축제의 시작을 함께 했다.

먼저 식전 축하공연과 '노란꽃잔치 이야기' 상영에 이어 '장성군민의 날' 수여가 진행됐다. 장성군민의 날(10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장성군민의 상은 올해 42회를 맞이했을 정도로 유서가 깊다. 이날에는 향토 방위 분야 김상복(장성군 삼서면) 씨와 농업분야 전춘섭(장성군 남면) 씨가 수상자로 선정돼 객석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서 개막선언과 각계 인사들의 축하영상에 스크린에 펼쳐진 뒤 삼무대 군악대의 축하연주로 개막식의 모든 식순이 마무리됐다.

한편, 올해 노란꽃잔치는 황화코스모스와 핑크몰리, 천일홍 등

10억 송이의 가을꽃과 컬러(color), 이야기(story), 빛(light) 세 가지 주제로 조성된 테마정원이 관광객들에게 나섰다. 장성군의 추산에 의하면 3일-5일, 사흘간 26만여 명의 방문객이 황룡강을 방문하며, 개막 이전부터 인기몰이가 시작됐다.

특히 황룡강 곳곳에 설치된 가든(garden)이 주목된다. 두바이의 미러러 가든에서 모티브를 얻은 유엔아이 가든과 훗카이도 모리노 가든을 옮겨놓은 듯한 드레스 가든, 황룡강에 숨어 사는 황룡'가든'의 전설에서 착안한 황룡정원 등이 방문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밖에 가든카페와 앵무새 특별체험관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유열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도 이어진다.

축제는 13일까지 이어지고, 20일까지 가을 나들이객 맞이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장성=박종영 기자

완도 구들장 논, OECD 회원국에 알려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 논 보존 협의회가 국내 세계중요농업유산지역 대표로 제12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와 OECD가 함께 개최하는 것으로 '농촌 삶의 질 향상(Delivering rural well-being)'을 주제로 한국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소개하고 현존하는 농촌 관련 네트워크와

OECD 전반 농촌 정책에 대한 지식을 논의하는 공유의 장으로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및 전북 완주 등에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울릭 베스터가드 크누센(Ulrik Vestergaard Knudsen) OECD 사무차장 등 임직원,

OECD 회원국의 농촌 정책 담당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 총 300여 명이 참여했다.

컨퍼런스 첫날 24일에는 '청산도의 세계중요 농업유산 구들장 논 보전 활동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이후 5년 간 지역 농가와 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추진한 다양한 농업유산 보전 활동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